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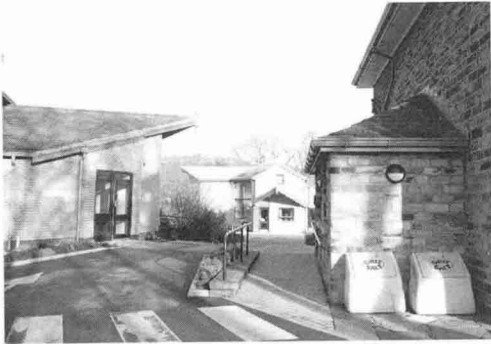
유럽호스피스 연수를 마치고 II

노유자수녀

센블 요양원 · 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교수 · 전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지난호에 이어 계속〉

7. Kirkwood Hospice



▲Kirkwood 호스피스 Family Care Center

영국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3시간쯤 가면 아름다운 소도시 Huddersfield에 있는 Kirkwood 호스피스센터에 이르게 된다. 이 호스피스는 1987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입원 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센터가 조화를 이루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호스피스설립 모금 운동에 참여 하였던 Vera Drake 부인을 만나봤는데, 이 분의 말에 의하면 “이 호스피스 설립을 위해 선의의 뜻을 가진 몇 사람이 호스피스 설립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모임을 통해 1인당 5페니 모금으로 시작하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였으나, 좋은 뜻을 가진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며, Drake 부인은 그 당시의 과정을 간단히 적은 글에 몇 파운드 돈을 곁게 접어 선물로 주면서 저의 꿈을 위해 기도해준

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기도와 편지로 격려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호스피스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3개의 아름다운 건물과 32병상 규모의 호스피스로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간호스피스와 교육센터 도서실이 있는 2층 건물, 그리고 약간 떨어져 봉사자와 기금모금을 위한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최근 새로 건축된 아름답고 아담한 Family care center가 있다. 이 건물들 주변에는 유명한 정원사들이 가꾸었다는 아름다운 정원, 산책로, 연못 등이 있다. 간호사와 환자,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졌으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시인이었다면 아름다운 시를 썼으리라 생각 되었다. 이



▶Kirkwood 주간호스피스



▲Kirkwood 호스피스 팀(앞줄 오른쪽 Mike Wood 신부)

호스피스센터는 미관상으로도 기능상으로도 이상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다.

주간호스피스에 환자들이 모이면 사방에 둘러있는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또 예술가와 함께 카드그리기, 실크물감들이기, 그림그리기, 시와 글쓰기, 원예 등 자기들이 원하는 코너에서 친교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환자들과 함께 나도 사흘에 걸쳐 실크 머플러에 그림을 그리고 물들이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Family Care Center 건물이 별도로 있어서 그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간호사로 아로마요법사가 되어 10년 동안 Family Care Center 치료실에서 일하는 전문아로마요법사와 뇌암 말기환자를 만났다. 이 36세 된 젊은 남자환자는 치료실에 주 2회 찾아 오는데 아로마요법을 받고 아주 편안해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한편 Koala라는 사별가족어린이 모임이 특이하게 운영된다.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지만 인상적인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치의가 참여하여 아이들의 의문을 풀어줌으로써 사별로 인한 슬픔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이 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늘 웃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던 Mike Wood 신부님이다. '호수천사'라 불리던 이 신부님은 원목자로서 어느 모임이나 참석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Mike 신부님의 사무실이 Family Care Center에 있고 아침 8시 30분에 본 건물 기도실에 제일 먼저 촛불에 불을 밝힌 후 저녁 5시 까지 여러 모임 참석은 물론 누구나 언제나 환자들과 가족은 물론 전 직원의 영성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들려주었다.

별도 건물을 가진 이 가족 돌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많은 체험들, 그리고 예술요법을 통한 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도움은 매우 인

상적이었으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환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 듯 모두들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다.

8. St. Columba's Hospice.



▲St. Columba 호스피스 전경



▲St. Columba 호스피스의 창시자 Dr. Doyle



▲St. Columba 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실

스코트랜드의 수도 Edinburgh에 있는 성 골롬바 호스피스센터에서 연수를 하게 된 때는 2003년 가을이었다. 이 호스피스는 아름다운 에딘버러의 도심지 끝 바닷가에 위치한 호텔과 같은 인상을 준 센터였다. 이곳에서 유럽호스피스협회 회장이었으며 '완화의학' 책 저자인 Doyle 박사를 만나서 무척 반가웠다. 이 분은 나의 호스피스 연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우신 분이시다.

연수 중 Doyle 박사님을 통해서 호스피스 시작 당시 어려웠던 에피소드와 오늘의 훌륭한 호스피스로 발전시키기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듣게 되었다. 은퇴한 Ann 간호사와 열심히 일을 추진하셨던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가 하면 협력자들의 감사함을 헤아리실 때는 눈에 빛이 나는 듯 정열적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이분의 말씀만으로도 호스피스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호스피스센터는 1977년에 10병상으로 시작되어 현재 32병상으로 운영되며, 1층에는 입원환자를 위해 여러 개의 동으로 이어진 건물이 있었고, 옆 동 2층 건물에는 행정실, 교육센터, 연구실, 가족을 위한 공간, 주간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 센터들이 있다. 그중 교육센터에서는 Queen Margaret 대학과 연계하여 호스피스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었고 여러 분야의 호스피스 전문가를 위한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간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원예요법, 아로마요법, 인도마사지 요법, 예술요법(그림 그리기, 시 쓰기, 수공예)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간 호스피스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방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안락한 의자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바다를 오가는 배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500명 이상의 봉사자가 17팀으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분야의 봉사를 하며, 다섯 개의 자선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무려 500여명이나 되는 봉사자를 잘 관리하는 봉사자책임자와 만나서 봉사자 선발과정과 교육 및 재교육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봉사를 지원하는 봉사자 면담장에 함께 하였었는데 세심한 질문 그러면서도 호스피스에서 봉사자로서 할일들에 대해 서로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봉사자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담한 후 대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서

로가 신중한 생각과 각오 하에 봉사일이 시작되기에 한번 봉사를 시작하면 정식 직원 못 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산다고 한다. 봉사자 관리자의 친절함 태도, 지식, 능숙한 인간관계와 관리 능력에 감탄 하였다.

9. St. Margaret's Hospice



▲St. Margaret 호스피스 성당



▲St. Margaret 호스피스 교육센터

스코트랜드의 대도시 중의 하나인 Glasgow의 Clydebank에 있는 St. Margaret's Hospice는 자비회의 수녀님들이 1950년에 19병상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32병상 규모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호스피스센터이다. 호스피스에 들어가자 Rita Dowson원장 수녀님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입구에까지 나와 환영해 주었다. 환자가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로 안내되어 2주 동안 제가 머물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호텔



▲St. Margaret 호스피스 팀 모임

같은 방이어서 당황하였다.

이 호스피스는 크고 널찍한 2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노인환자를 위한 16병상이 있고 2층에는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16병상이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 교육센터 건물에는 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 도서실, 세미나 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층에 있는 아담한 성당에는 끊이지 않는 환자와 가족들의 기도 특히 원장수녀와 직원들이 이곳을 자주 찾고 머물며 깊은 기도하는 모습이 이 호스피스를 힘 있게 이끌어 가는 큰 비결임을 느끼게 하였다. 환자들이 “Do no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라고 쓰인 예수님 앞에서 오랜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 아로마요법사와 함께 주간호스피스에 온 환자를 아로마실에서 아로마 마사지 하는 것을 여러 번 관찰 할 기회를 가졌고, 간호사 대상으로 실습을 할 기회까지 주어 고맙았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호스피스전문 간호사와 며칠 동안 가정방문을 하면서 아로마마사지를 하는 것과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 호스피스에서 아로마마사지와 더불어 환자와의 친숙한 관계,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전문자적인 역량에 크게 감동하였다. 이 곳에서는 아로마마사지를 간호사라도 아로마요법사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봉사자는 더더

구나 할 수 없다.

10. St. Andrew's Hospice

이곳은 Glasgow의 소도시에 있는 호스피스이다. 이 센터는 1986년에 4병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2병상(말기환자를 위한 20병상, 노인을 위한 12병상)이며, 건물은 'U'자 형으로 입원 호스피스, 주간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센터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 중앙에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다. 건물 가운데에 있는 정원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향시 피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물들은 찾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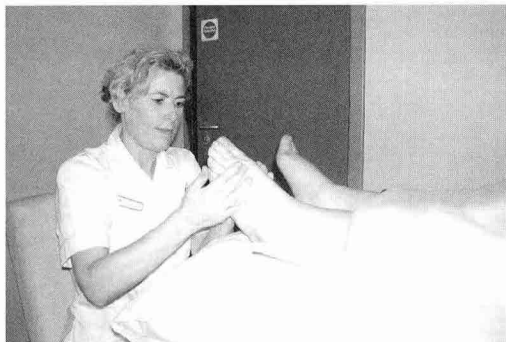
호스피스 팀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평균 8명 이상이 참석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환자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교환 하며 환자와 가족의 최상의 삶의 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것이 환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모습도 아주 좋아보였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와 함께 했던 가정방문 중

▶St. Andrew 호스피스 원장수녀 Catherine

▼St. Andrew 호스피스





▲St. Andrew 호스피스 아로마테라피스트

특히 기억나는 환자는 뇌 암 환자 부부였는데 간호사는 통증이나 구토 등의 여러 증상들을 아주 숙련된 기술로 해결해 주고, 자상한 상담을 통해 걱정하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 부부는 간호사의 방문이 늘 큰 희망을 준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호스피스센터에서는 다른 호스피스와 같이 호스피스 기금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한 바자회를 볼 기회가 있었다. 직원들과 수녀님들, 환자와 가족의 작품들이 있고, 유명 메이커 회사들의 기증품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 나눔의 잔치라고 말한다. 수익금도 아주 많이 된다고 Catherine 원장수녀는 기쁘게 자랑하였다. 이 호스피스센터에서는 부속 호스피스 계획 하에 돈을 저축하고 있었다.

이곳의 사별교육 프로그램은 그 지역 성당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고 호스피스 온 직원과 그 지역 가톨릭 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어 사별가족 관리가 돋보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2년 동안 유럽 호스피스연수 중 체험했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18개 호스피스기관을 연수하였고, 호스피스 연수는 각 호스피스에서 몇 달, 몇주, 혹은 며칠씩이었다.

연수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연수할 호스피스 기관을 선택하여 적어도 6개월 내지 일년 전에 연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계약을 하였는데, 건강진단서까지 준비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연수기관 선택은 주로 독립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대도시 중 도시, 수도회 또는 일반인이 운영 하는 곳을 택하였다.

실습은 호스피스 연수책임자와 합의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호스피스의 원장으로부터 실습 인정서를 받았다.

연수기간 동안 실습한 내용은 입원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 주간 호스피스센터에서 수행되는 일들에 참여하였다. 호스피스기관장, 각 파트의 책임자, 의료책임의사, 주간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 원목실, 봉사자, 기금모금, 기획실, 사회사업, 작업요법, 물리치료, 예술요법, 대체요법 특히 아로마요법 파트 등의 책임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며, 일하는 시간에 참석하여 이모저모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호스피스 초창기 설립자들과도 만나서 설립과정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느낀 점은 어느 곳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선한사람들의 좋은 뜻에는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려지고 반드시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연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 모든 호스피스들이 참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이 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따뜻함, 친숙함과 더 머물고 싶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독립호스피스센터들에서는 (입원 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로 구성됨) 환자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보며, 퇴원 환자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입원했던 호스피스 팀의 간호를 계속 받게 되고, 주간호스피스 센터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 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최대화 하는 호스피스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 호스피스센터는 연구와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 교육은 여러 곳에서 대학들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호스피스 팀원들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호스피스 정신을 바탕으로 팀원 간에 조화를 이루며 협동하면서 목적을 달성 하고 있었다.
 - 모든 결정이 철저히 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내려진다.
 - 호스피스의 시설은 기능상, 미관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대부분의 호스피스가 환자와 직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은 물론, 가족과 봉사자를 위해서도 여로 모로 고려되어 있었다.
 - 어떤 경우는 환자들 자신이 자신의 죽음도 예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철저한 호스피

- 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어려웠고, 현재도 정부지원 30%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 모금프로그램 즉 자선 가계운영, 후원금, 기부금, 유산기증 등으로 충당하고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이 무척 부러웠다.
 - 방문했던 나라들은 모두 성숙된 기부문화, 무엇보다 성숙된 국민들의 나눔의 정신, 그리고 이웃의 가장 어려운 짐을 함께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호스피스 성장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답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여러 형태의 호스피스, 특히 독립호스피스 센터가 더 많이 설립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어...

오늘 하루가 아름답길 바랍니다.
내일 하루도 아름답길 바랍니다.
모레도 .. 그 이튿날도..
그렇게 아름답길 바랍니다..

어쩌면 쉽게 지나칠 모든것에..
아름다움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에..
가끔은 시선이 멈쳐.. 그것에...
느끼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글 발췌]